2020.5.10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완전복음 완전치유
-복음으로 여는 빌레몬서-

창세기45:1-5, 빌레몬서1:10-12

정윤돈 목사님

"태초의 우주만물을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물을 만드시되 그 중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타락하여 영원토록 지옥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오만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땅 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이 복음 증거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강단메시지가 성취되게 하시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말씀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었다. 요셉은 엄청난 상처로 영혼과 마음을 망칠 수 있었지만, 완전복음 안에서 완전치유된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의 자녀였다. 오늘 증거 할 빌레몬서도 이렇게 완전복음 안에서 완전치유를 보여준 모델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복음 완전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1. 먼저, 빌레몬서의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강해하고자 한다.

빌레몬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1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를 강해하기 용이할 것 같다.

(1)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중직자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다.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에는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인 것이다. 골로새교회는 평안하지 않는 도시였다. 영지주의, 유대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있는 도시였다. 1장 1절부터 2절을 보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은 모든 전도자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1장 2절이다.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에 나오는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 혹은 누나로 추정하고 있다. 가정도 다문화 가정으로 보고 있다. 선교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킵보라는 이름의 뜻은 '마부'이다. 이 아킵보는 후일에 골로새교회의 사역자로 쓰임 받았다. 그 때 당시 마부도 노예와 같은 신분이다. 그런데 종인 아킵보는 골로새교회의 목회자로 쓰임 받았던 것이다. 1장 2절에 '우리와 함께 병사 된'이라는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마부였던 아킵보가 바울팀과 함께 전도캠프팀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는 노예출신 아킵보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장 2절에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다. 빌레몬은 집에서 지교회를 시작한 중직자였다.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학교, 직장에서도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2) 또 빌레몬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1장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는 주님과 성도들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 사랑과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진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 1장 6절에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1장 6절의 '네 믿음의 교제'에서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이다. '코이노니아'란 '친교, 교제', '나누어줌', '참여', '자선품이나 기부금'을 의미한다. 빌레몬은 '코이노니아'를 잘했던 사람이었다. 즉, 빌레몬은 성도들과의 친교와 교제를 잘한 인물이었고 지역사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자선과 기부를 많이 한 제자였던 것이다. 빌레몬의 교제와 구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6절 하반절에 보면 빌레몬의 모습을 보고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약간 봉사와 사랑을 보여주면 그 복음적인 선행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게 된다. 그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하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중직자였다.

(3) 사도 바울은 1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한 뒤 8절부터는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8절부터 10절이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즉,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옥중에서 전도를 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4)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로마까지 도망간 빌레몬의 노예였다.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로마로 도망간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노예로 자란 환경이 악습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완전복음을 듣고 완전치유된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여(고린도전서 7장 21절)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신분의 자유까

지 주었다고 한다. 2세기 초에 활동했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교회의 대표목회자가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11절부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추천하고 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대변자로써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단순히 복음을 받고 회개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심복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옆에 계속해서 두고 싶을 정도로 필요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다. 우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 없다. 14절에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인격과 자세와 제자를 양육하는 태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맹목적으로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달하고 있다.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가고 결국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말씀은 모든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석해주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5)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 1장 16절에서 18절이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6) 바울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확실한 어조로 오네시모를 돌봐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만큼 두 사람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나중에 골로새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을 너무나도 소중한 인물들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은 시력이 나빠서 다른 사람이 편지를 적어 주었지만 빌레몬서는 친필로 쓸 정도로 간절하고 중요한 사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장 19절에서 21절이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2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숙소도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한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빌레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믿음의 축복과 사람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을 함께 받은 중직자였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도 이와 같은 참된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린다. 빌레몬은 큰 그릇, 깨끗한 그릇, 편한 그릇이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1장 23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은 모든 전도자들의 동역자요 식주인이며 보호자의 역할을 한 중직자였다. 아마도 빌레몬은 여기 마지막 인사에 나온 5명의 숙소도 준비했을 것이다. 전도자들의 기도속에 있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2.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완전복음 안에서 완전치유된 세 인물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신을 배신한 노예를 용서할 만큼 완전복음이 체질화된 중직자였으며 말씀과 영적훈련을 사모한 중직자였다. 많은 학자들은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말을 타고 가서 훈련을 받은 두란노서원의 제자로 보고 있다. 그 증거가 마부인 아킵보가 목회자가 된 것이다. 목회자와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한 중직자였다.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를 설립한 중직자였다. 그 시대의 제도와 이념을 뛰어 넘어 자신의 마부를 목회자로 세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다.

(2) 바울은 어떤 목회자였을까? 어떤 현장에서든지 말씀운동을 하는 전도자였다.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 한 전도자였다. 전도한 제자는 끝까지 책임져주는 전도자였다.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목회자였다. 완전복음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영적인 리더였다.

(3) 오네시모는 어떤 렘넌트, 청년이었을까? 자신의 영적문제 때문에 갈등하며 답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던 청년이었다.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인물이었다. 말씀과 진리 앞에서 진실한 청년이었다.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변화시킨 희망이 있는 복음적인 청년이었다.

결론으로, 빌레몬서 안에서 우리들의 CV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절대언약은 우리들이 완전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평생비전은 완전복음으로 237나라를 치유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24시간 완전복음을 누린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완전치유를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완전 복음으로 절대불가능한 영적문제를 치유하는 사역에 도전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 찾고 도전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란다.

그리스도의 완전복음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한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처럼 최고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이때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인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빌레몬서에서 나온 세 제자처럼 시대를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